

“가게는 작아도 맛은 일품입니다”

—길림시 하남가 상업거리 개조후 면모 일신



하남가 상업거리 일각

“사장님, 훈제고기 밀전병 주세요!”
“그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돼요!”
“가게가 작다고만 보지 마세요. 맛이 정말 좋아요!”
마침 주말을 맞아 대형 인터랙티브 투어 쇼(互动巡游秀)가 길림시 하남가에서 공연되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거리 중간 배모형의 작은 가게—사평리권밀전병 패스트푸드점도 손님들로 붐볐다. 그런 가운데 정장 손흥매와 동료들은 바쁘게 돌아치고 있었다.

작은 가게 안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과 고기 향기가 넘치는데 손님들은 음식을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손흥매는 사평 사람이다. 그는 사평리권음식주식유한회사의 오랜 종업원이다. 회사는 올해 년초에 길림시 하남가 상업거리 먹자골목에서 업체 유치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상업거리의 미래 발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길림시에 첫 직영점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9월, 하남가 상업거리는 개조

후 면모가 일신되었다. 보행거리에 배모형 가게 등 경영 시설을 증설하여 상업 기능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반 거리도 고품격스럽게 포장되어 하남가의 문화 품위를 제고시켰다.

하남가를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하여 다시 개장한 후 길림시성북그룹은 올해 12월말까지 거리의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주는 우대정책을 내놓았는데 리권밀전병이 하남가에 입주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20여개 부동한 유명 맛집들이 모두 하남가에 점포를 열었다.

“길림에 온 지 한달이 넘었는데 이 가게를 작다고만 보지 말라. 영업액이 정말 대단하다.” 손흥매는 가게가 개업 초기부터 인기가 폭발해 고객이 가장 많은 때는 하루에 300여장의 훈제고기 밀전병이 팔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개조후의 하남가는 상업 분위기가 농후하여 관광객,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상인들 또한 전례없는 발전 기회를 맞이했다.

“길림시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길림시의 사람들도 미식가들이다.”

발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자 손흥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한달여의 경영은 그와 회사로 하여금 길림시 하남가의 미래 발전에 대해 더욱 신심을 가지게 했다. 회사는 이미 하남가에 리권밀전병호점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는데 방안이 이미 확정되어 곧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된다.

손흥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호텔은 문화 분위기로 가득차 있어 하남가의 기질과 일치될 것이다. 호텔에는 또 길림시에서 일부 요리사, 봉사인원 등을 초빙하여 현지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녀는 “길림시에 온 시간은 길지 않지만 한달여 동안 길림시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을 보고 정말 길림 사람들이 부러웠다.”고 감탄한다.

길림시에 가게를 오픈하고 길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손흥매의 행복이다.

지금 길림시 하남가를 거니노라면 고품스러운 분위기와 떠들썩한 상업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곳에는 음식의 유혹뿐만 아니라 문화의 전승과 력사의 기억도 있다.

/ 강성일보

길림역, 눈비 날씨에 적극 대응



11월 26일, 길림시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 눈비 날씨에 대처하기 위하여 길림철도국은 앞당겨 극단적인 날씨 조기경보를 가동하고 간부들을 조직하여 관할구역내 49개 역에 내려가 눈비가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는 날씨에 적극 대응하였다.

25일 야간에 비가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고속철도의 접촉망이 쉽게 얼어붙을 위험과 결부하여 길림철도국은 적극적으로 제설차 13대를 조를하여 고속열차가 순조롭게 운행되도록 보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갈림길, 선로, 운행설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갈림길의 고인물과 적설을 제때에 정리하여 갈림길의 미끄러움을, 련결봉판의 결빙을 방지하고 전전후 감시통제를 가동했다.

여행객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부와 종업원들을 조직하여 승객 대기 플랫폼, 지하통로 등에 미끄럼 방지 발판침대를 증설하고 제때에 적설과 고인물을 청소했다.

대합실 진입구, 개찰구, 승강장 등 관건 부위에 작업일군을 추가하여 안전 선전과 인도를 강화하고 발밑 안전에 주의를 돌리고 질서있게 승강하도록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길림철도국은 또 난로, 담요 등 물자와 온수를 충분히 준비하여 여행객들에게 공급하였다.

대합실에서 기차 탑승 플랫폼으로 통하는 6곳의 검표 진입 통로를 점검하고 차가운 공기가 직접 대합실에 밀려들지 않도록 확보하였다.

/ 송화강넷

길림 송광부두—교하 애림어항부두, 바지선 개통



일전, 길림시 송화호 뚝 송광부두에서 교하 애림어항부두를 잇는 바지선(趸船) 항로가 정식으로 개통되었다. 이는 송화강 길림성 구간 관광대통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이 항로는 매일 8시 30분에 송광부두에서 바지선을 띄우고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 애림어항부두에서 귀항하며 전 구간 40킬로미터를

운항하는 데 3시간 반이 소요된다.

차량은 바지선으로 운반할 수 있는데 애림어항부두에서 하선한 후 자가용으로 교하 흥업곡까지 20분이 걸린다. 바지선은 차량 8대를 수송할 수 있고 여행객은 승객 150명이 탑승할 수 있다. 탑승 예약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 송화강넷

서란시림업국, 삼림화재 안전 강화



삼림 수호원들이 관찰탑에서 화재 위험을 감시, 조사하고 있다.

서란시림업국은 겨울철 기후가 건조하고 화재 원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등 문제에 직면하여 전면적으로 잠재적 화재 위

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중점 삼림자원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길림일보

송화호 항공운동 새 소비로 부상



일전, 중화전국체육총회에서 주최한 2024 중국야외운동산업대회에서 길림시 송화호 항공운동이 전국 10대 2024 야외운동·항공운동에 선정되었다.

최근년간 길림시는 저공경제를 발전시키는 면에서 추세가 강하고 재료공급 우세가 뚜렷하며 항공산업 기초가 착실하고 항공교육체계가 완벽하며 응용시장 전망이 밝다. 길림시체육국, 만과송화호휴양지가 국가체육총국 항공무선모형운동관리센터에 적극 신고한 결과 2018년 7월 만과송화호휴양지 항공비행캠프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동북의 첫 항공비행캠프 간판을 내걸었다.

현장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료식동력글라이더(轮式动力滑翔伞), 무동력글라이더, 열기구 등 여러가지 비행 체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비행훈련, 항공캠프교육, 관광객 비행 체험 등을

제공한다.

다음 단계에 길림시는 2024년 전국 10대 항공운동 브랜드 우세를 충분히 리용하여 국가체육총국 항공무선모형운동관리센터, 국가체육총국 안양항공운동학교 등 부문과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만과송화호휴양지, 북대호스키휴양지 등 8개 스키장과 10여개 온천호텔을 련결하는 체육관광 비행 로선을 구축하여 립체공간 자원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함으로써 신질생산력을 서둘러 형성하게 된다.

동시에 항공체육운동과 교육, 과학기술, 관광 등 업종의 심층적인 융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적극 육성하며 소비를 인도하고 항공체육운동 씨비수 공급과 질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길림시 저공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조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예정이다.

/ 송화강넷

길림시 직업교육, 기능인재의 꿈 이뤄준다

일전, 2024년 세계직업대학기능대회 경탈전 중등직업학교조(中职组) 용접기술경기 종목에서 길림시 계공업학교 부유, 하서기, 범기통 등 3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1년전, 학부모들이 ‘책이 먹히지 않는다’고 말하던 이 세 아이는 직업학교에 들어갔다.

오늘, 그들은 전국 60여개 팀과 함께 경기를 펼쳐 최종 가장 높은 시상대에 섰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은 “정말 힘들었다. 피곤해서 물어버린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왜 버틸 수 있었을까?

범기통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중학교 때 학습 성적이 나빴어요. 직업학교에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시험에서 금상까지 받아서 자신이 자기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애초에 공부를 잘 못해서 고중 진학에서도 떨어졌어요. 부모는 이 학교의 용접전공이 성에서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저를 여기에 보냈어요.”

입학후 용접실습팀에 선발되어 줄곧 선생님과 선배들을 따라배우고 연습했는데 그때 웃에는 용접하면서 불뚱이 튀어 여기저기 구멍이 나있다고 부유는 말했다.

“배우고 연습하다 보니 기술이 좋아졌어요. 진짜 능력을 키우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하서기가 수줍어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거의 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줄곧 우리와 함께 했고 학교 지도자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자’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부모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찼다.

범기통의 어머니는 “예전에 직업교육은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막판길이라는 말을 들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술을 배우고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서기의 어머니도 아이가 지금 많이 변했다고 했다.

“학교의 교육 방식과 리념, 그리고 실습 훈련 설비는 모두 선진적이다. 현재의 직업교육은 정말 기술인재형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맞아요.” 길림시계공업학교 책임자 장우가 말꼬리를 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학교는 독립적인 실습훈련장사를 갖고 있는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표준화 실습, 훈련, 경기 재료를 제공하는 기계가공작업장, 국가 지정 용접대회 용접기 320대, 최신 국가 경기표

/ 강성일보